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1.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히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2.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기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3.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4. 새벽별의 노래따라 힘찬 찬송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 주와 같이 길가는것 즐거운일 아닌가
우리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후렴: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2.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 하는 대로 주와같이 가겠네
4. 옛 선지자 예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 갈때 까지 주와 같이 걸겠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 설 가정예식 순서지

하나님의 사랑안에서
즐거운 설 명절되세요

 태장성결교회

예배순서

찬송가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유튜브 찬송음원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 함 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 다 같 이 기 도 ----- 말 은 이

“사랑의 하나님, 설날에 가족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은혜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주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어떤 상황도 잘 극복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 전도서 3:11 ----- 인 도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말씀 나눔 -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때가 있다' - 인 도 자

가정을 위한 합심기도 ----- 다 같 이

찬 송 -----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 다 같 이

주 기도 문 ----- 다 같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때가 있다

지난 연말부터 우리나라가 혼란한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정리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설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함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우리는 그분의 뜻과 때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되길 바랍니다.

1.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전도서 3장은 "범사에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고 선언하며, 모든 사건과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계획과 노력에 의지하지만,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마주할 때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게 됩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인간의 본질적 한계와 겸손의 필요성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영원한 질서를 부여하셨지만, 인간은 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참된 신앙의 시작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고자 창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3.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신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인간의 유한함을 깊이 깨닫고 마음으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외심은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생생하게 기억하며 찬송하거나, 매일 기도를 쉬지 않는 모습에서 경외심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삶은 어려운 시기에도 개인과 공동체에 풍요와 평화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설날은 심정적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맡기고 그분의 섭리를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되고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상을 시작합시다. 또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때가 있음을 굳게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